

# 남원시, 中企 인력난 해소 나섰다

### 지자체 첫 '퀵스타트' 사업 추진 공장 준공 전 인력 모집해 교육 교육생에 최대 60만원 장려금

남원시가 기업 유치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도 '남원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은 미국 조지아주의 기업투자 유치 정책인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남원 실정에 맞게 기획한 사업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첫 사례다.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사)전북산학융합원이 사업을 맡아 수행 중이며 남원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에서는 남원시민을 채용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 사업을 통해 남원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초기 인력난을 해소해 줄 방침이다.

사업은 관내 신설·중설 기업의 필요인력을 사전에 모집·교육하고 공장 준공 시점에 맞춰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교육생에게는 2개월 교육기간 월 최대 60만원의 교육 훈련 장려금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은 교육생 채용 시 최대 2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의 고용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진행 중인 중소기업 실무교육.

이와 함께 시는 기존 공장 중인 관내 기업들에게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채용에 성공한 기업은 간식 제공과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의 가이더자동차 공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동된

것은 퀵스타트 프로그램 덕분이었다"면서 "남원에 투자한 '원푸드' 기업도 지난해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인력을 지원받아 현재도 성공적으로 가동되며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 '꽃정원단지' 접근도로 확포장

### 13억원 투입 3차선 확장... 내년까지 사업 완료

고창군이 노동저수지 일원의 '고창꽃정원단지', '자연마당' 등에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접근성 향상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고창읍성의 측면과 맞닿아 있는 노동저수지 일

원은 고창군 도심 속의 대표 관광지로 갈수록 방문객이 증가해 교통량에 따른 도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립체육관에서 꽃정원단지 사이 650m 구간 폭 12.5m 2

차선 도로를 폭 16.25m 3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계획과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친 후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꽃정원단지, 자연마당 등 고창군 도심 속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 임산물체험단지 단장 마치고 재개장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더 다양한 체험과 편리한 운영시간으로 재개장했다.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는 지난해 1만2071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시설 조성 이후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정읍의 대표적인 체험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산물체험단지는 정읍의 임산물 먹거리 판매, 힐링체험 관광 활성화, 목재 문화·교육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차향다원 ▲차향문화관 ▲향기온실 ▲목재문화체험장 등이 갖춰졌다.

차향다원에서는 대추차, 한방차, 복분자 요거트

스무디 등 정읍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를 맛볼 수 있으며 혈액 순환과 피로 개선에 효과적인 족욕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차향문화관에서는 ▲호두초코쿠키 ▲버섯피자 ▲힘빰 ▲모루인형 만들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고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원목 의자 ▲독서대 ▲훈상 만들기 등 목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보다 더 알차고 다양하게 준비된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차향다원의 운영 시간을 기존 오전 9시30분-오후 6시를 오전 10시30분-오후 7시로 조정해 방문객들에게 더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

제공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이다.

체험단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정읍시청 시설운영과 산림휴양시설팀에 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전북 첫 '드론' 무인 자율비행 시연

### 열화상 카메라 장착 불법 소각·산불 발생지점 탐색 전승

남원시가 전북 최초로 드론 무인 자율비행 및 현장 지원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

지난 3일 운봉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열린 시연회는 최경식 시장과 시의원을 비롯해 남원소방서, 남원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지근로자 발대식과 함께 열렸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 드론이 불법 소각 행위와 산불 발생지점을 탐색하고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지휘본부 현장지원시스템에 송출됐으며 드론 장착 확성기를 통해 산불예방 및 안전계도 방송의 시연됐다.

이 드론 플랫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촌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졌다. 방치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방치 폐가 등을 자동 분석하는 AI 분석 알고리즘과 드론 무인 자율비행 관제시스템이 갖춰졌고 지난

해에는 지휘통제 기능이 강화된 현장 지원시스템이 추가돼 더욱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 졌다.

드론은 조종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좌표 입력으로 비가시권에서 자율비행을 하며 4K 고해상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했다.

데이터를 전송받은 현장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즉각적인 상황 모니터링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효율적 대응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또 기존 속련된 드론 전문가의 수동조작이 필요했던 실종자 수색작업이 체계적인 시스템과 첨단 기술을 통해 재난 대응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레저스포츠, 재난안전과 생활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첨단기술인 드론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 어르신 6개월간 맞춤 건강관리

### 이달까지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대상 170명 모집

고창군이 건강습관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2월 28일까지 선착순 170명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오늘건강' 스마트폰 앱(APP)과 스마트기기(활동량계 외 3종)를 활용하여 6개월 동안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이 비대면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창군민 170명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고창군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단, 2024년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노인장기요양 등급(1-5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자가 측정기기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대상자가 스마트폰 기기 연동이 어렵거나 데이터 및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자

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6개월간 비대면으로 매일 건강체크를 통해 건강위험요인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 건강검사 결과에 따라 선별지원하는 활동량계, 블루투스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 스마트기기와 오늘건강 앱을 활용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각종 미션(걷기, 복약 등)을 수행하게 된다. 미션 완료 시 적립된 포인트로 상품을 지급하는 등 대상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실시간 관리할 예정이다.

유병소 고창군 보건소장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어르신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형조 기자 khj@

# 정읍시 구강이동교실 62개 마을 진료

### 3월21일까지 예방 서비스

정읍시 보건소가 치과 가기 힘든 지역주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구강이동교실'을 운영한다.

정읍시 보건소는 치과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과 무의면 구강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강이동교실은 치과공중보건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운영팀이 2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영원면과 이평면 62개 마을을 방문해 개인 맞춤형 구강보건 예방 서비스와 구강보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강이동교실은 2022년 산내면, 2023년 북면

과 갑곡면, 2024년 웅동면, 칠보면, 태인면 등지에서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구강병 조기 발견을 위한 구강검진 ▲치주질환 예방과 구강 위생 관리를 위한 스케일링 ▲시린 이완화를 위한 불소도포 등이 포함된다.

정읍시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 잔존치 관리법, 틀니 관리법 등 구강보건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구강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소는 이 같은 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가 오는 11-12월에는 정우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이동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데크의 세대교체!”



품질보증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